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향후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1] 2025).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심화시키면서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상 정년은 사실상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고 있어 정년 이후 연금수급 전까지 소득공백이 예상된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고용정책을 넘어 노동시장과 연금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간이 연장되면 고령근로자의 소득활동과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소득 기반이 확대되는 반면, 연공급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나 직무급[2] 등 임금체계 개편이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는 기업의 퇴직연금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 2023). 이와 관련하여 OECD(2018)는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생산성을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특히 임금체계의 변화는 퇴직연금의 유형 선택과 운용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DB형은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퇴직 전 임금수준에 연계되는 반면, 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운용성과가 가입자의 퇴직자산을 결정한다. 따라서 DB형의 경우 제도 특성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 물론 임금피크제나 직무급 도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DB형·DC형 등 퇴직연금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그 효과는 임금감액 방식, 퇴직급여 산정기준,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1) 통계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데이터처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시점 이전은 모두 통계청으로 명기함

2) 직무의 가치와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며, 연공급에 비해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완화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 → 임금체계 변화(임금피크 적용 여부) → 퇴직연금 유형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근로기간의 연장은 연금자산의 운용구조와 개인연금 시장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은 가입기간과 적립기간이 확대되면서 장기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비중 확대는 운용성과 중심의 시장구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후자산의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은 개인연금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퇴직 이후 소득공백은 일부 축소될 수 있지만, 장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종신연금과 안정적인 인출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시장에서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축적과 개인연금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소득 및 장수위험 대응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산업의 역할에도 새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보험업권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장기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연계한 연금상품, 종신소득 보장 및 은퇴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는 연금소득뿐 아니라 의료·장기요양 등 건강보장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은퇴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한 경우는 많지 않다. 대신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기간 연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적립 확대, 연금상품 다양화, 장기 자산운용 강화 및 장수위험 관리체계의 발전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해외 사례는 정년연장 자체보다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연금시장과 보험산업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년연장을 단순히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고용정책으로 국한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변화를, 연금시장에서는 퇴직연금 구조와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시장 변화를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사업모델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변수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정년제, 임금피크제, 퇴직연금 유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주요국의 근로기간 연장 정책과 연금시장 변화를 비교하여 퇴직연금 정책과 보험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정년연장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정년연장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는 노동시장과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퇴직연금시장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크게 ① 고용효과(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 효과), ②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 변화(기업의 노동시장 대응), ③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 연계(정책 파급효과)의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용효과 연구는 정년연장이 고령자 및 청년고용, 세대 간 고용대체, 기업의 인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남재량(2018), 정진호 외 2인(2020)는 정년 60세 의무화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안주엽(2012)은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간의 관계 및 정책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한편 최충 외 2인(2017)는 정년연장 정책과 연계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와 청년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Ⅰ-1〉 선행연구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본 연구와의 차별성	주요 참고문헌
고용 효과	정년연장이 고령자·청년고용, 세대 간 고용대체 및 기업의 인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 대응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주목	안주엽(2012), 최충 외 2인(2017), 남재량(2018), 정진호 외 2인(2020), OECD(2018), OECD(2019)
임금/ 고용형태 변화	임금피크제, 직무급, 계속고용 등 기업의 인건비 조정방식을 분석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 유형(DB·DC·혼합형) 변화의 연계성을 실증 분석	황경진 외 2인(2022), 박성재 외(2024), 고용노동부(2024), 윤정숙 외(2025), 지은정 외 3인(2026)
연금/ 사회보장 연계	노후소득 보장, 연금수급개시연령 및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분석	퇴직연금시장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분석	강성호 외 2인(2016), OECD(2022), OECD(2025a), Bhattacharya-Craven et al.(2025)

자료: 저자가 작성함

둘째,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 연구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임금피크제, 연공급 개편, 직무급 및 계속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박성재 외(2024)과 고용노동부(2024)는 임금피크제의 운영현황과 확산을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연금제도 및 사회정책 연구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간의 소득공백 완화, 노후소득 보장 및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강성호 외 2인(2016)는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는 계속고용과 연금제도의 연계, 장수경제에 대응한 민간연금 및 보험산업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종합하면, 기존 연구는 정년연장의 노동시장 효과와 임금체계 개편, 공적연금과의 연계 필요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퇴직연금시장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임금체계 변화와 퇴직연금 유형 간의 연계성, 보험회사 등 연금사업자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차별성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구내용, 연구방법,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기존 연구가 주로 정년연장의 고용효과와 세대 간 고용대체, 공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정년연장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기업의 임금체계 변화와 DB형·DC형·혼합형 등 퇴직연금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시장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과 퇴직연금 유형 선택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주요국의 근로기간 연장정책과 이에 따른 연금시장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실증분석과 제도분석을 결합하여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연금시장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실증분석과 해외 사례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사적연금시장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개선과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연구구성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서 연구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년연장 제도와 사적연금시장 현황을 검토하고,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시장구조 및 보험업권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실증분석의 분석틀을 마련한다.

제3장에서는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정년연장이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임금피크제가 퇴직연금 유형(DB형·DC형·혼합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정년연장 → 임금체계 변화 → 퇴직연금 유형 변화로 이어지는 연계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제4장에서는 일본, 독일, 영국 및 호주 등 주요국의 근로기간 연장 정책과 이에 따른 연금시장 및 보험산업의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발전, 장기 자산운용 및 장수위험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제도분석과 실증분석,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년연장에 대응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시장 정책방향과 보험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연계한 상품 개발, 장기 자산운용 고도화 및 은퇴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등 보험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정년연장이 기업의 임금체계와 퇴직연금 유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연금시장과 보험산업의 대응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퇴직연금 정책과 보험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